지역 소식통

완주풍류학교, '유아무료 국악체험' 운영 시작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완주풍류학교(교장 김종덕)가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전통음악의 멋과 흥 '유아무료국악체험' 운영을 시작했다.

풍류학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아 국악체험을 진행할 총 17개 기관을 선정했다.

국악체험은 7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회씩 진행한다. 1회당 약 30~40분 정도 소요된다.

어린이들은 국악기 배우기, 국악동요 및 아리랑 배우기, 환관무 춤사위 배우기 등으로 연령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완주풍류학교는 유아국악체험 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매주 화, 목요일에 민요와 풍물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예술로 여름을 잇다'라는 부제로 토요상설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2억600만원 징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억6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6주간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억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로 체납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했다.

또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44.3%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확대, 주 4회 상시 영치, 월 2회 야간 영치 및 읍면동 권역별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청신호

김제시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5일 "김제시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지역주도형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재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해달라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 공모를 2차례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시행한 재공모 결과 효성중공업(주)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했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역량, 실행구조, 지역주민 상생방안 등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담당부서가 심사한 지역발전 기여금, 시공 실적 등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평가 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효성중공업(주) 컨소시엄은 태양광 시공 실적이 풍부한 효성중공업(주)를 대표사로 전북자치도 내 업체 6개사가 함께했으며, 이 중 3개사가 관내 업체로 사업기간 중 지역 장비·기자재 사용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협약안에 주민 참여 및 지역발전 기여금 등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선 협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면서 "각종 현안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전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26일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

김제시, '지평선의 꿈, 세계를 날다' 로 슬로건 정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6일 제26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축제는 '지평선의 꿈! 세계를 날다'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핵심농경문화 콘텐츠 강화와 트랜드를 반영한 공간구성 변화를 통해 새로운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슬로건은 농경문화를 꽃피운 지평선의 역사, 문화, 인물의 이야기를 축제에 담아 가장 한국적인 김제다움을 창조하고 더 넓은 세상에 펼쳐 보이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특히 대한민국 전통농경문화 대표 축제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5대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으로 핵심농경문화 콘텐츠 강화,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공간구성, 가족중심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상생, 지속 가능한 건강한 축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며 "지난 25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축제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도전을 시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완주군의회, 전반기 의정 마감… 추경 · 조례안 22건 등 의결

'농산물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결 · 채택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은 3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유이수 의원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참여예산 돼야', 유의식 의원은 '완주군 평생학습관 신설 필요',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 수소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 준비 서둘러야'를 주제로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각종 조례안 2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김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채택해 해당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지난 10~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 필요한 사항 293건, 우수사례 4건 등 총 297건을 도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완주·전주 통합' 군수 입장 표명 △완주시 승격 적극 노력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적극 대응 △보은매립장 근복적 대책 수립 △순세계 잉여금 최소화 노력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 완주군 실익 방향 추진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 관리·감독 철저 △인구정책 적극 모색 △이월사업비 최소화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군의회는 정례회 중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 규모를 집행부가 제출한 1조272억 6,082만6,000원으로 승인했다. 예비비는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등 18건 46억7,077만2,000원을 지출 결정했다.

이어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970억8,317만1,000원으로 의결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86억161만8,000원, 특별회계 484억8,155만3,000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2024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은 △세입추계정확성 도모 △결산상 잉여금 발생 최소화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방안 검토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강구 △성과지표 달성 노력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서남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위를 지켜보면서 소통에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완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완주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를 폐회 한 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최우수 부서에는 사회복지과, 우수부서는 재난안전과, 장려부서는 상하수도하업소가 선정돼 각각 표창장이 전달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민관협력 가족돌봄아동 31명 지원

가족 돌봄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완주군 아동청소년 31명이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돼 지원받게 됐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와 '완주군과 함께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각 읍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총 31명의 가족돌봄아동을 발굴했다. 가족돌봄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이지만 보호자의 고령, 장애,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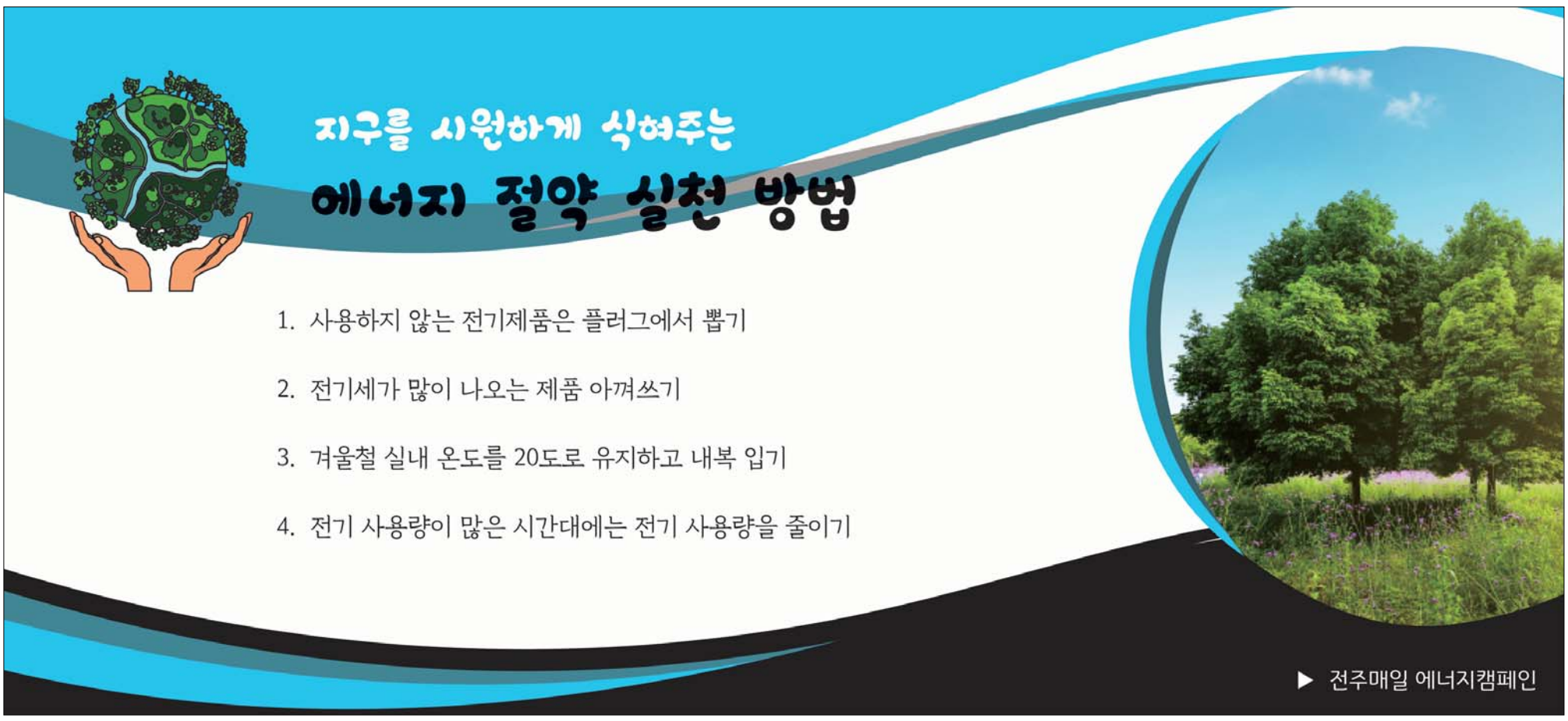
이번에 발굴된 31명의 돌봄아동 평균연령은 14.9세로 나타났으며 돌봄의 대상은 부모, 형제자매가 가장 많았다. 아동들은 보호자의 질병과 장애로 집안일과 형제자매 돌보기를 맡고 있었다. 이에 완주군은 31명의 가족돌봄아동에게 지난 25일 가족돌봄지원금 100만 원씩 총 3,1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 후에는 실무자들과 완주군의 사례를 공유하며 '완주군과 함께돌봄' 2차 공동사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돌봄으로 지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진로적성검사, 가족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이 논의됐다. 이를 토대로 1차 가족돌봄지원금 지원에 이어 4,000만 원 규모의 2차 '완주군과 함께돌봄'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드림스타트 운영위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 드림스타트는 지난 25일 부시장실에서 2024년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매년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현장 복지전달체계 간 연계 강화 및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발전을 목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논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찬준 부시장(위원장)을 포함해 아동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지난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결과 및 2024년 상반기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결과 보고와 2024년 하반기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계획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드림스타트의 질적 사례관리 향상을 추진과제로 삼아 대상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원과의 연계·협력에 중심을 뒀으며 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 교육, 외부 전문가의 자문, 타 기관과의 사례회의 확대로 질적으로 향상된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제=곽노태 기자